

+ 찬미 예수님

저스틴 신부님의 5월 16/17일 (토, 일) 미사 강론

한국어 번역입니다. 은총 가득한 시간 되십시오!

*선교(복음화)의 두려움을 극복하기(Overcoming Fear of Evangelization)

북미의 가톨릭 지도자이자 내가 상당히 존경하는 Brett Powell 은 최근 이렇게 썼습니다. “28년간의 목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나눌 때 여전히 긴장된다. 간이 떨려서 잠자코 있든지, 아니면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든지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 글을 읽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복음화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해 냈습니다.

- 지난 12월, 알파에서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나는 몇몇 친구들을 초대했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지는 못 했습니다. 한가지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지만, 다른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해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관계를 손상시킬까봐 다음 단계를 밟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내 머리속에 있습니다. 누군가 달혀있다고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열려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수님을 나누는데 있어서 당신이 다음 단계를 밟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세가지 독서를 모두 되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안하시는지 생각 해 봅시다. 제1 독서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불구자가 나왔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사도8:5-8).

- 여기 두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말과 목격자. 먼저, 필리포스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그리스도교는 원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모두 같은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든 종교는 같은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교는 주로 도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현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번 언급한 선교라고 불리는 그리스도교의 네가지 부분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thejustmeasure.ca/2019/12/25/a-chance-for-reconciliation/>;

<http://thejustmeasure.ca/2018/03/11/the-kerygma-makes-life-better/>;

<http://thejustmeasure.ca/2019/01/13/why-should-god-let-you-into-heaven/>)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으로 부터 분리 시켰습니다(그것은 죄입니다);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우리는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초대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관계의 언어와 인간다움이 들리십니까?

- 여기에 우리가 종종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간단한 이유 두가지가
있습니다:

- 1) 우리는 아이들에게 믿음에 대해 말할때, 좋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감사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인간적 요소를 강조합니다-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덧붙여야 할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성체의 선물과 그분을 모방하는 삶의 목표와 같은 초 자연적인
부분입니다;
- 2) 한 친구는 자신이 아는 사람이 ‘신’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뿐,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는 결코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이 개별적인 것이 이 사람들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일까요? 그는 그분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신은 항상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존재
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홈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고, 한번은 펠릭스 민 신부가 신학생일 때, 그에게 ‘펠릭스, 나랑
토니랑 같이 운동할래?’라고 물었습니다.나는 비디오 영상 속의 남자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펠릭스 신부는 웃으며, “ 신부님은 그가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말하시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지만, 나는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정말
여기 계시니까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마십시오.
둘째, 성 베드로 또한 목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왔다.’

그분께서는 사실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악마를 쫓아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걱정, 그들의 우울함과 외로움을 내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몸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경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듣고 격려하고 도전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평화와 기쁨의 더 충만한 삶을 보여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리포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하느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시키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제2 독서에서 성 베드로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십시오”(1베드3:15); 또다른 번역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배하십시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관심을 지배하고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는 잘못된 신(성공, 돈벌기, 인생 즐기기, 친구,
쾌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배론 주교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이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분의 주위에 있어야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세상(세속적)은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어떤
인물도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To Light a Fire on the Earth*, 99).

- 1)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두려울때,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보다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만, 완전히는 아닌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내 삶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나는 용기가 납니다.

- 2)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요한14:15-17).

-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그분의 계명을 따른다면 그분께서 ‘보호자’라 부르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보호자’는 말그대로 ‘동반이라 불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사람을 초대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뛰어넘기 위한 두번째 방법은 우리의 안전 지대에서 벗어나 그저 시작을 하면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 내가 처음 카속(사제가 입는 검은색 평상복)을 입기 시작했을때, 나는 그것이 사제직이나 봉헌의 삶을 사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http://thejustmeasure.ca/2017/09/03/what-a-disciple-is/>). 하지만 내가 이것을 항상 입어야하는지 결정하려 할때 패션 디자이너이며 내가 판단을 신뢰하는 한 친구에게 물어봤고 그녀는 그것이 나를 사람들과 멀어지게 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실의 영’이라 부르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진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천직을 고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곁으로 오셨고, 이것은 결실이 있었습니다.

- 영국 런던에서 알파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모든 개신교 목사들은 너무 멋졌습니다. 그들은 젊고 유행에 민감했고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리를 걷고 있을때 신부복 때문에 멈춰서는 것은 나였습니다. 나는 멈춰 서며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미소 지으며 사람들을 알파로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들은 “이런, 나도 카속을 사야겠군!”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상기 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기 시켜줄 다른 두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1.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지만 확실히 거절이 있을 것입니다. 15년전 Fr. Ray Roden은 내게 미국의 대통령이 된 군인 Ulysses grant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Goliad(골리아드)에서 나온 첫번째날 저녁, 우리는 늑대들이 우리 바로 앞에서 아주 이상하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초원의 숲이 높아서 짐승들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그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내 귀에는 그들이 우리 일행과 말들을 한끼에 집어 삼킬 만큼 충분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벤자민..은 동물의 본성과 그 수를 셀 수 없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몇가지 가능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소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나는 되돌아 갈 수 있는 정신적 용기가 부족하여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랜트, 그 무리에 늑대들이 몇마리나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고, 내가 그 숫자에 대해 과대 평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동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어서 내 예상보다 적지만 맞을 가능성이 있는 숫자로 ‘어..스무마리 정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을 달렸습니다. 곧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보기 전에 그들 가까이에 가게 되었고, 그들은 두마리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조금 전 10분 동안 듣고 있었던 모든 소음을 냈습니다. 나는 몇몇 정치인들의 실망스러운 소음을 들을때 마다 이 생각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세어 보기 전까지는 더 많아 보입니다(*Personal Memoirs of Ulysses S. Grant*, 24-25).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진리를 상기 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교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2. 성령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서는 그분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만들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팔을 넓게 벌리시며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에 관해 무관심할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기가 두려울때, 하느님께 그들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사 부탁 드리십시오”(Rick Warren, *Purpose Driven Life*, 294).

-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지 기도 해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고, 모두에게 달으려고 하시고, 그래서 나도 모두에게
달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두가지 행동중 어떤 것을 취할
필요를 느끼십니까? 1)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더 경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 다음 단계인 복음 전파를 택하는 것입니까? 그 단계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나은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공 장소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제안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미사 후 온라인 채팅에서의
질문입니다.

- 우리는 6월 4일과 6일 온라인 알파를 시작할 예정이므로,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분을 찾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성인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님으로 경외하고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의 곁으로 와서 진실을 상기시켜
주셨고, 그것이 그의 두려움을 앗아갔습니다.

*오늘 강론 말씀도 은총으로 가득한 시간이길 기도드립니다.

COVID-19 시기에도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신 모든 사제들과 수도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제를 위한 기도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사제들이 하는 모든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